

영광 ‘새싹인삼’ 일본 수출길…판로 개척 성과

농업기술센터 연계 지역 업체 재배 기술·상품성 확보

안정적 물량 확보…지속가능한 수출 모델 구축 계획

영광군에서 키운 ‘새싹인삼’이 일본으로 수출된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역 농업회사법인 ㈜이로운세상이 일본 카가와현 미토요시 소재 농사조합법인 다카세 차업조합과 협의를 거쳐 새싹인삼 일본 수출을 추진한다.

㈜이로운세상은 지난 2018년 귀농한 양진선 대표를 중심으로 성장한 지역 농업법인으로, 영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융자 지원과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연계해 왔다.

또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생산·품질관리부터 상품화, 유통 전략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며 이번 수출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수출 추진 과정에서는 일본 측의 철저한 현장 검증이 이어졌다.

다카세 차업조합 이나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영광군을 방문해 재배시설과 생산 공정, 위생·품질관리 체계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새싹인삼의 품질과 상품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새싹인삼이 건강 트렌드와 맞물리며 소비자 반응이 좋아 향후 판로 확대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영광군은 신선 농산물 수출 특성상 통관 및 운송 지연이 품질에 직결되는 만큼, 콜드체인(저온 유통) 구축, 운송 경로, 통관 절차 등 실무 전반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며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등 군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필요 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농사조합법인 다카세 차업조합 오오야네 미나 총무가 수출 지원을 맡

은 ㈜사인트래블 대표이사와 함께 영광군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품목 가격·출고 일정·운송 방식 등 수출 실행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시범 수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가와 법인이 축적해 온 재배 기술과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정식 도착이 수출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생산·유통·통관 전 과정을 촘촘히 정비해 지속 가능한 수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양진선 ㈜이로운세상 대표(가운데)가 최근 영광 지역 내에 위치한 새싹인삼 농장에서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왼쪽)과 농사조합법인 다카세 차업조합 오오야네 미나 총무(오른쪽)에게 재배 기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유통 혁신’ 화순팍, 지난해 매출 61억원 돌파



목표 50억원 초과 달성…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화순군 대표 농·특산물 유통 브랜드인 ‘화순팍’의 지난해 매출이 총

61억8000만원을 기록, 당초 목표였던 50억원보다 11억8000만원 초과 달성했다. 화순팍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B2B2C(기업·소비자·플랫폼) 융합형 공공쇼핑몰 모델이다.

군은 지난해 초부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환경 조

성을 목표로 화순팍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 맞춤형 유통 채널 구축에 주력해 왔다.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도입, 기업·단체 대상 대량 구매 전용 채널 운영, SNS 공동구매, 기획세트 출시 등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성과를 냈다.

또 화순사랑상품권 간편결제 시스템과 ‘화순팍 e-선물카드’를 도입해 지역화폐

와 온라인 소비를 연계하는 새로운 상생 소비 모델을 구축했다. 이 같은 정책은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군민에게는 체감형 혜택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화순팍은 공공 쇼핑몰임에도 민간 수준의 상품 기획력과 유연한 운영 방식을 갖추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마케팅을 강화해 전국 단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순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 매출 70억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 판로 개척과 온라인 유통 강화에 속도를 낼 계

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화순팍을 중심으로 농가·기업·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제 구조를 확대해 ‘농업이 살아있는 디지털 유통도시 화순’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한 화순군 농촌활력교장은 “화순팍의 성과는 농민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다”며 “농민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군민이 지역 농산물을 자랑스럽게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유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기 기자 vip3355@gwangnam.co.kr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 ‘소원을 날려요’

내달 14~15일 나주 영산강 정원 일원서

나주시가 ‘2026 나주 방문의 해’의 시작을 알리며 전통 명절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전한다.



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연날리기 체험 키트가 제공되며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 경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2월 14~15일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2026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새해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연날리기를 중심으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형 명절 축제로 마련됐다.

개막식은 다음달 14일 오후 1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선언과 대형 방패연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나주의 희망과 염원을 하늘로 띄우는 상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 운영되는 소원 연날리기 체험존에서는 참가자들이 연을 직접 꾸미고 새해 소망을 적어 하늘로 날려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사전 접수 시 참가비 할인 혜택이 포함된다.

사전 접수는 다음달 13일까지 포스

로를 중심으로 한 군교구마존과 캠핑형 심터를 조성해 겨울 정취를 느끼며 설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먹거리 부스와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분식과 간식류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만든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지역 예술단체와 청년 버스커 등의 공연도 있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가 가족과 이웃이 새해 소망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찬 기자 pose007@

영암, 상수도 현대화로 예산 절감

28억원 절약…유수율 86% 달성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마친 영암·삼호읍 일대의 상수도 유수율 86% 이상을 달성하며 연간 28억원 상당의 수도물을 아꼈다.

유수율은 생산·공급된 수도물이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이진 비율로, 정수장에서 나간 수도물이 가정 등 사용처에 몇 퍼센트 도착했나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영암군은 지난 2021년인 사업 초기 50%였던 유수율을 36.0%p 끌어올려 목표치인 85%를 초과 달성하고, 연간 132만t의 수도물을 아껴 2023년 상수도 생산원가 2130원/t 기준 28억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영암·삼호읍 일대는 상수관로 노후화로 잦은 누수가 발생해 유수율이 낮고, 갑작스러운 급수 중단으로 주민 민원도 많았다.

군은 유수를 저하, 주민 불편 해소 등 고질적 상수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국비 194억원을 확보해 2023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노후관 정비에 들어갔다.

3년 동안 영암읍 영암터미널에서 군청 등 18.5km 구간, 삼호읍 세한대에서 대불 주거단지 등 17.2km 구간으로 구성된 연장 35.7km의 상수관로를 교체하고 기존관 폐쇄, 상수관망과 스마트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 유수율 85% 보증기간에 들어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내다 보고 있는 영암군은, 올해 9월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유지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시행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거두는 방향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며 “꾸준히 깨끗한 수도물 공급으로 영암 군민의 물 불지를 향상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보성군은 최근 ‘2027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성,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본격화

보성말차 시설현대화 등 내년 3514억 목표 설정

보성군은 최근 ‘2027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3514억원 확보를 목표로 체계적인 예산 확보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철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했으며, 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타당성, 국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성 존제산 국립 밀원특화단지 조성, K-Tea 보성말차 시설현대화,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2단계), 별교·회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노동·미려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 국비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비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대응 전략과 실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는 보성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다”며 “국정과제와 전남도 시책을 자세히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모사업 선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강진사랑상품권, 설 명절 충전·할인 확대

모바일 100만원 15%·지류 70만원 10% 할인

강진군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강진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지원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대상은 모바일(착) 강진사랑상품권이다.

이번 상향 조정은 설 명절 기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된 것으로, 모바일(착) 상품권의 구매한도

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은 기존 선할인 10%에서 후개시백 5%를 추가 지급하는 총 15%로 상향했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구매한도 70만원, 선할인 10%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번 강진사랑상품권 특별 상향 운영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

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받은 2억원으로 추진된다. 이는 강진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과 건전한 유통관리, 국비 연계 집행을 적극 추진해 온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강진군은 7년 연속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연중 10%로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으며, 2026년에도 상품권 발행과 할인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52@

장성, 잠암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매듭

514m 구간…사업비 10억 투입

장성군은 최근 장성을 안평2리 잠암마을에서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식을 진행했다.

공사를 마친 도로는 안평역에서 잠암마을 회관까지 이어지는 514m 구간이다. 이전까지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데다 경사가지 가팔라 도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고령 주민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았다.

민원을 접수한 장성군은 지난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갔다. 도로 폭을 7m까지 넓히고, 선형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등 이용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했다.

최근 확·포장 공사 마무리되자 잠암마을 주민들은 24일 자발적으로 준공식을 열어 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공사를 계기로 잠암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nh6699@